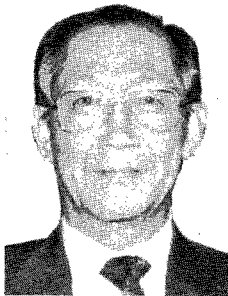


# 계란공급관리방식에 의한 채란양계산업의 안정화 방안



오봉국

서울대학교 농대 학장

본고는 지난 11월28일 대한양계협회와 한국가금학회가 마련한 “한국 채란양계산업의 안정화와 발전방향에 관한 심포지움”내용을 발췌한 것이다..편집자주

## I. 서론

우리나라는 1970년이래 몇차례 양계불황을 겪어 왔다. 주요원인은 수요공급의 불균형과 유통파동, 사료파동 등에 의하여 초래되었다. 이 중에서 만성적인 생산과잉으로 말미암아 지난가의 장기적인 지속이 큰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계란은 가격탄성치가 대단히 낮아서(-0.15)가령 5%의 생산증가는 난가를 33%하락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정도로 난가의 진폭이 불안정하다.

이와같은 불안요인에 대처하고 안정된 양계산업을 유지하기 위하여 정책적 결정에 의한 행정력의 개입으로 계란공급관리(Supply management System)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나라가 점차 많아지고 있다.

표1. 각국의 난사비

자유시장체제			공급관리체제		
국 명	76~82	83~85	국 명	76~82	83~85
미 국	4.4	3.9	캐나다	5.3	6.0
프랑스	3.9	3.5	남아연방	5.6	5.3
화 란	3.6	3.3	뉴질랜드	5.7	5.3
영 국	3.8	3.5	호 주	6.0	

공급관리방식의 유형은 대체로 3가지로 나눌 수 있다.

1. 입추를 규제하는 방법
  2. 산란계 수수를 규제하는 방법
  3. 계란판매량을 규제하는 방법
- 위 3가지중 산란계 수수를 규제하는 쿼타제 “Hen Quota”방법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3가지를 동시에 규제하는 방법이 선택되기도 한다.

II 캐나다의 계란공급관리제도

1. 캐나다 온타리오주 계란공급관리제도

○70, 71년 타주로부터 값싼 계란이 유입되어 가격 교란으로 계란전쟁이 일어났다. 72년에는 극심한 양계불황으로 큰 타격을 받게 되었다. (당시 타스당 계란생산가는 34센트, 농가판매가격은 21.6센트)

○72년 불황의 교훈으로 생산자의 자발적 참여와 건의로 “양계산업 안정화 법안”의 통과로 쿼타제가 실시되고 계란유통기구가 설립되었다.

○’74년 통계와 연구부족으로 과잉생산과 저장란의 부패 등으로 문제가 되어 ’75년 계란출하 쿼타제에서 산란계 쿼타제로 변경.

2 온타리오주 채란양계 현황(1986년)

○쿼타배정 농가수 : 789호

○채란계 사육수수 : 7,432,931수

○호당평균사육수수 : 9,000~9,500수

표2. 사육규모별 사육농가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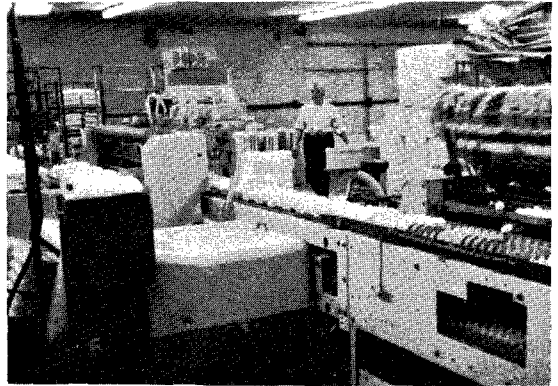
사육규모	생산농가수	생산농가비율	쿼타배정비율
500~ 2,000	89	11.74%	1.42%
2,001~ 10,000	464	61.21	35.92
10,001~ 15,000	89	11.74	14.70
15,001~ 30,000	86	11.35	24.23
20,001~ 50,000	17	2.24	8.56
50,001~500,000	13	1.72	15.14

※ 500수이하를 사육하는 농가 31호에 대한 쿼타량은 포함되지 않음.

3. 계란유통기구

유통기구의 조직은 연방정부의 조직과 주정부의 조직으로 구분된다.

○캐나다 연방정부의 유통기구 : 10개주 생산자대표 10명과 정부대표, 소비자대표 각 1명씩 12명의 대의원으로 구성되어진다. 쿼타책정, 과잉계란의 처분, 생산자가격 산정, 부과세와 관리비용 책정, 소비홍보사업 등을 주요임무로 하고 있으며 농수산부의 감독과 지시를 받는다.



○주정부의 유통기구 : 생산자대표 15명으로 구성되고 유통에 관한 일반행정, 재정, 쿼타운영, 계란의 수집 및 분배, 소비홍보, 연구사업 등을 한다.

○계란유통기구에서 생산자 수취가격을 산정한다. “생산비 산출방식에 의하여 산정하는데 정부의 승인을 필요로 한다.

계란값 산출기준은 평균사육규모와 연평균 수당 생산량을 기준하며 산출개념은 농가의 적정수입에 기준을 두고 있다.

4. 공급관리와 할당제도

만성적인 과잉생산과 저난가 형식으로 산업이 불안정하게 되고 난가변동이 커서 생산자와 소비자가 모두 불합리한 조건에 처하게 됨으로써 양계산업과 계란값의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한 방안으로 산란계 수수 쿼타제를 채택하게 되었다.

○쿼타결정과 운영

쿼타결정의 기본은 수요예측에 따라 적정 생산량을 산출하여 전체 산란계 사육수수를 책정한다. 정부에서는 지역간 조정을 위하여 인구분포와 1인당 연간소비량을 감안하여 쿼타를 조정하되 실제 수요량 추정치의 10%정도 상회조정하게 된다.

○쿼타제도의 감시와 조정

쿼타제도를 운영함에 있어서 항시 할당된 수수 이상으로 사육하는 생산자 유무를 감시하며 계란생산량(출하량)을 감시한다. 이 감시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생산자는 지정된 출하기관(GP센타)에 출하해야 한다.

## ■ 한국채란양계산업 발전방향에 관한 심포지움 발췌

### 5. 과잉생산된 계란의 처리

소비량 추정에 의하여 생산쿼타가 결정되지만 소비량과 산란생리로 보아 반드시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수요와 공급의 과부족현상이 발생한다. 일시적인 공급과잉현상이 일어날 경우도 있으나 2~3개월 장기체화될 때는 수매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난가공공장에 판매하거나 외국(주로 미국)으로 수출하는데 이때 발생하는 결손액은 부과금으로 보전된다.

### Ⅲ. 결론

1. 공급조절체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여러가지 조건을 만족시켜 주어야 한다.

○생산자의 자발적 참여와 전폭적인 지지가 있어야 한다.

○강제성이 필요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강력한 행정력의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

○모든 생산자는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하며 무임승차가 없어야 한다.

○이 제도에 참가하지 않은 생산자의 사육수수는 최소 숫자로 제한하여야 한다.

○쿼타는 양도가 가능해야 하나 양도규모는 규제되어야 한다.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제도운영과 부과금 각출은 사육수수를 기초로 하며 생산량을 기준하여서는 안된다.

○수요와 공급의 정확한 예측을 위해서 과학적인 시장파악과 연구가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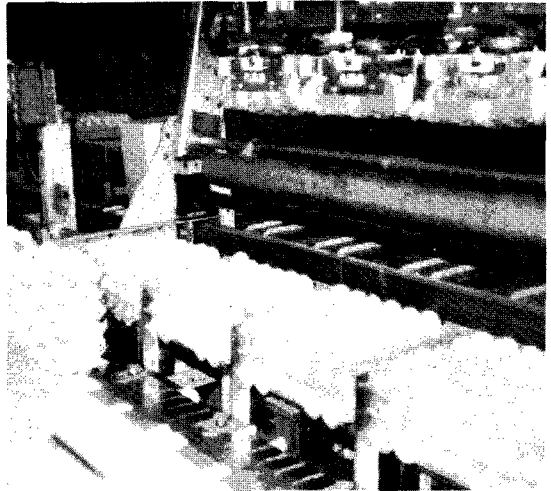
○양계산업을 비효율화시키지 않도록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며 신규참여자에 대한 어느정도 영역이 마련되어야 한다.

○소비자를 비롯한 관련분야와 생산자 상호간의 불평을 방지하기 위한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

○생산자의 최대 사육규모를 책정하여 이익의 편중적 분배를 방지해야 한다.

### 2. 계란공급관리체제에 대한 반대이견은

○쿼타제는 현존 양계업자만을 지원하고 새로 시작하는 사람이나 쿼타를 인수하는 사람은 프리미엄



을 지불하여야 하는 불편이 있다.

○새로운 기술을 가진 양계가의 진출을 막고 낙후된 기존 양계가만 유지시켜 생산효율을 저하시킬 가능성이 있다.

○소비자는 공급관리비용이 추가되는 높은 난가에 불평하며, 독점가격으로 난가가 조절되는 전매체제를 비난한다.

○어느 생산자는 개인의 생산자유를 침해하는 관료제도라 비난한다.

○공급관리체제 밖에 있는 양계가로부터 생산된 계란에 의하여 2중가격과 암시장 형성 가능성이 크다.

○공급관리제도 시작초기의 현상으로 조절체제 밖의 농장에서 생산된 계란이 시장을 잠식함으로써 공급체제 기능을 마비시킬 위험이 있다.

○여러나라의 경험을 보면 일단 시도된 제도는 되돌리기 어렵다. 따라서 생산관리체제를 원만히 도입하려면 시장체제로부터 점진적으로 시도되어야 할 마지막 단계라 주장하는 의견이 많다. 계란공급체제는 양계사업 안정화를 위한 한가지 모형을 제시하는 것이다. 계란공급체제가 반드시 우리 실정에 적합한 방안이라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여러가지 안정화 방안 중에서 우리 실정에 맞는 제도를 찾아야 하겠다.